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명훈\*\*

---

### <국문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지원 등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10명과 2018년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20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31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다시 이 주제들을 3개 영역의 10개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재학 중 고단한 학교생활과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의 지도와 틀에 박힌 수업을 받는 것에 힘들어하거나 비행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우, 교사, 가족 관계가 좋은 학업중단자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학업중단자들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선택하였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는 매우 이른 경우도 있었으며, 학업중단 절차는 비교적 쉽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그만둘 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심정이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하는 자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자도 있었으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도 있었다.

셋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업중단 후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다양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복교에 대한 성공기대는 낮았다. 또한, 그들은 주변이 학업중단을 이해해주고, 믿고 지켜봐주길 바랐다. 현재 학교 밖의 여러 기관에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체험 활동, 상담 복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주제어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업중단, 현상학적 연구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8S1A5A2A01031506)

\*\* 이명훈(bluesky@cnu.ac.kr)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업중단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단순히 떠나는 의미 외에 학업중퇴자라는 낙인감과 비행문제,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우 공식적 교육체계를 통한 자원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출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오혜영 외, 2011; 최동선, 이상준, 2009). 이처럼 학업중단은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정과 학교만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국가의 협력적인 능동적 개입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임유화, 이병욱, 2014).

따라서 학업중단에 대한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대상이 주로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에서의 학업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학업 성적이나 학업의 어려움, 지나친 선행학습 등을 학업중단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는데(유진이, 2009),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학생들의 입학 동기 등이 일반고와 달라 학업중단의 원인도 다르다. 또한, 특성화고의 학업중단률은 일반고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교육부, 2018)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업중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업중단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윤철경 외, 2014),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김범구, 2012), 잠재적 학업중단자에 관한 연구(손병덕, 김민선, 2017), 학업중단자의 학교 복귀에 관한 연구(김신영, 정경은, 2014),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연구(김기화, 2017), 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최지연, 김현철, 2016) 등으로 학업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업중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삶의 경험 자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이은자, 송정아; 2017), 더구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의 학교생활,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에 대한 사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성화고에서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도방안 마련과 지원기관의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지원 등을 구명하는 것이다.

## 3. 연구의 제한점

연구참여자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경험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의 명확성에 부분적인 한계를 지닐 수 있다(김문태, 2013).

# II. 이론적 배경

## 1.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특성 및 현황

학업중단이란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현상이다(교육부, 1996). 학업중단 과정은 짧게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받은 처벌 결과로 몇 주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문선화, 신섭중, 이충기, 2000), 길게는 수년에 걸쳐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도 한다(정연순, 이민경, 2008). 학업중단시 주요 상담대상은 부모님이며, 그 다음은 친구와 선후배였으며, 학업중단시 교사의 상담자 역할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3).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개인 심리·정서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문제행동 경험에서도 음주, 흡연 외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와 학교 교사,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정 위반 경험 등 환경적 요인을 비교했을 때 학업중단 청소년은 친한 친구수가 많고, 학습부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무단결석, 수업 빼먹기와 같은 학교규정 위반사항이 많았다(윤철경 외, 2013).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에 만족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윤철경 외, 2013; 이주연, 정제영, 2015).

학업중단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김현주, 2000). 첫째, 학업중단자에게는 교육기회의 상실과 소속감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로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생긴다. 둘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청소년 시기에 학업중단으로 인한 기회상실로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과의 부적응현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셋째, 학업중단은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집합적 수준에서도 국가나 사회에 많은 비용부담을 유발시킨다. 국가는 학업중단자와 졸업자 사이의 수입 차이 때문에 장차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비용이나 재할교육비용 등도 국가나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특성화고의 경우 일반고와 교육목적, 교육내용, 학생들의 입학 동기, 학교생활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손득운, 2008), 학업중단에 있어서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 학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이 아닌 중학교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진학한 경우가 많은데(이명훈 외, 2018), 특성화고의 경우 이로 인한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현황은 <표 1>과 같다. 특성화고의 경우 점차적으로 학업중단률이 줄어들고 있으나 2018년의 경우 일반고의 학업중단률은 1.10%인 반면 특성화고의 학업중단률은 2.78%로, 약 2.5배 높다.

<표 1>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성화고			일반고		
	전체학생	학업중단자	학업중단률	전체학생	학업중단자	학업중단률
2003	542,077	21,016	(3.88)	1,224,452	12,421	(1.01)
2008	487,492	17,466	(3.58)	1,419,486	15,477	(1.09)
2013	320,374	9,846	(3.07)	1,356,070	15,883	(1.17)
2018	252,260	7,006	(2.78)	1,096,331	12,073	(1.10)

\*교육부(2003, 2008, 2013, 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2.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원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원인은 <표 2>와 같다. 2018년의 경우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부적응(46.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품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중단 원인 중 가사는 2003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기타는 점차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특성화고의 학비가 면제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표 2>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원인

단위: 명, (%)

연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2003	618 (2.9)	8000 (38.1)	2612 (12.4)	8639 (41.1)	1147 (5.5)	21016 (100)
2008	584 (3.4)	5,805 (33.2)	834 (4.8)	8,160 (46.7)	2,083 (11.9)	17466 (100)
2013	207 (2.1)	911 (9.3)	438 (4.4)	6,615 (67.2)	1,675 (17.0)	9846 (100)
2018	166 (2.4)	143 (2.0)	486 (6.9)	3,236 (46.2)	2,975 (42.5)	7006 (100)

\*교육부(2003, 2008, 2013, 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요인으로는 부정적 자아개념, 낮은 자기조절능력, 무력감,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정요인이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요인으로는 학업문제,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교칙에 대한 엄격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지역 규모, 주변 유해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학업중단 현상은 한 두가지 요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기보다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김미영, 2017; 나옥자, 2005; 서우석 외, 2001; 정계영 외, 2017; 최상근 외, 2010).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직 성적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이 많을 경우 좌절과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며, 열등감 속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흥미 및 학습동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이백령, 2012).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 중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요인 중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규범 준수여부가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학교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을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중퇴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한석, 2015).

### 3.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지원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생활패턴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감정과 상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윤철경 외, 2013; 전경숙, 2013). 또한,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특성을 가졌기에 늦잠을 자거나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등의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며, 학업중단자 5명 중 1명 이상이 학업중단 후 7개월 이상 목표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자유로움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므로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진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행으로 빠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업중단 이후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학업중단 이후 생활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금명자 외, 2004; 윤철경 외, 2013; 이주연, 전은진, 2017; 정계영, 2015).

학업중단자의 절반 이상이 학업중단시 학교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할 정도로 학교의 정보제공 역할이 매우 취약하였다(윤철경 외, 2013).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 후 가장 필요로 했던 도움은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며, 진로 정보를 찾기 위해 주로 부모님

이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87.5%)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69.2%), 공공기관 상담(22.6%)을 하였다(윤철경 외, 2013).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의 부족함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안정성이 매우 낮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전은진, 2017). 따라서 학업중단자들은 불안전 고용, 노동 착취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쉬우며, 이러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학업중단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높았으나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전단지 돌리기, 주유원, 음식 배달 등 보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전경숙, 2006).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 후의 적응수준을 성공적으로 높여 가려면 자신에 대한 신념 수준과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야 하며, 진로계획이 명확하고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조망을 할수록 적응적인 생활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자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학업중단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김영희, 2014).

학업중단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에 약 200여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업중도탈락 위험이 높은 청소년이나 이미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동하, 강준혁, 2018).

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학업중단자들은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백승호, 201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주요 대책은 ① 학업중단 위기 징후의 조기발견, ②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③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를 위한 사후관리·지원, ④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대, ⑤ 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역량강화, ⑥ 전달체계 및 법적 기반 강화이다.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주요 대책은 ①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접근 강화, ② 두 번째의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 ③ 취약청소년 생활, 의료, 주거지원 확대 등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계가공, 특수용접, 커피 바리스타, 피부미용 등과 같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4).

각 부처의 지원사업 내용을 분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크게 ① 상담·멘토링·동반자와 같은 인적 지원 서비스, ②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③ 직업훈련 및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지원, ④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14).

### Ⅲ. 연구의 방법

지금까지 이루어진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현상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조용환, 199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업중단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연구 방법(김정희, 2015)을 활용하였다.

#### 1.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연구참여자는 연구될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한다(이근호, 2010). 이를 위하여 학교계열과 생활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 3>과 같이 10명의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게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학교별로 협력교사를 1명씩 선정하고, 그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소개받았으며, 대상자가 법적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중 한 분에게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의 학교계열은 공업계열이 5명, 상업계열이 3명, 기타계열이 2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6명, 여성이 4명이었다. 만 나이는 16~19세이었으며, 재학기간은 2개월~1년 9개월이었다. 생활지역은 대도시가 5명, 중소도시가 5명이었으며, 학업중단 사유는 교우관계, 꿈 실현, 교칙 미준수, 우울증 등 다양하였다.

<표 3> 연구참여자의 일반 특성

기호	학교 계열	성별	만 나이	중단시기(재학기간)	생활 지역	학업중단 사유
A	공업	남	18	2학년(1년3개월)	대도시	교우 관계, 우울증, 강박증
B	공업	남	16	1학년(4개월)	대도시	꿈(래퍼)을 실현하기 위해
C	공업	남	16	1학년(2개월)	대도시	교칙 미준수(지각, 결석)
D	공업	남	17	2학년(9개월)	중소도시	희망직업(세공사)과 안맞아서
E	공업	남	16	1학년(7개월)	중소도시	교칙 미준수(교권침해, 흡연 등)
F	상업	여	18	2학년(1년 9개월)	대도시	성적에 대한 강박증
G	상업	여	19	2학년(1년 5개월)	중소도시	꿈(미용사)을 실현하기 위해
H	상업	여	16	1학년(7개월)	중소도시	적성 불일치
I	기타	남	17	2학년(1년 2개월)	대도시	교우관계, 우울증
J	기타	여	16	1학년(5개월)	중소도시	배움에 대한 목적 상실, 우울증

## 2. 면담 질문지 개발

연구참여자와의 심도있는 면담을 위하여 학업중단에 관한 선행연구들(김경숙, 김인희, 2016; 김근영, 2012; 류진아, 2015; 백승호, 2017)의 면담 질문지와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면담 질문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2명과 특성화고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학업중단자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 1명에게 검토받았다.

## 3. 자료 수집

이 연구는 학업중단자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면담 내용이 연구 자료이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밝고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 1인당 약 1시간정도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는 먼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연구 주제와 목적, 면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익명성 보장, 답변하기 싫은 내용에 대한 거부 권한, 언제든지 연구를 그만둘 수 있는 권한 등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다시 한번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나중에 면담 내용을 전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승낙을 받고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은 사전에 준비한 면담 질문지 내용을 질문하면 연구참여자가 해당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마친 후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모든 면담을 마치고 2주 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Colaizzi의 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신경림 외, 2004에서 재인용). 첫째, 면담 내용 중 연구 현상과 관련이 있는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둘째, 의미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중복되는 내용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셋째, 재진술한 내용으로부터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었다. 넷째, 이렇게 추출한 의미들을 주제(themes)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다시 주제 묶음(theme

clusters)으로 유목화하였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각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여섯째,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 5. 질적 연구의 엄격성 확보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가 제안한 신뢰성, 전이성, 의존성, 확증성의 4가지를 고려하였다(서원석, 이창훈, 김기수, 2015에서 재인용). 첫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2명의 연구자와 1명의 특성화고 현직교사에게 연구결과를 검토받았다. 둘째, 전이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선정시 학교계열, 성별, 생활지역, 학업중단 이유 등을 고려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업중단자 2인에게 연구결과를 검토받았다. 셋째, 의존성 확보를 위하여 Colaizzi의 체계적인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면담시 기록한 면담기록지, 면담 녹음 파일 등의 연구자료를 보관하였다. 넷째, 확증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들과 면담시에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관이 면담을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설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 6. 질적 연구의 윤리적 문제 고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장시간에 걸쳐 연구대상자의 내면의 사고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에 상호 교류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윤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격 존중, 예의뿐 아니라 사전에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나 연구 중단과 같은 연구참여자 권리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2018년 6월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이 연구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9월에 연구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분에게도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명윤리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윤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 IV. 연구의 결과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의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120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냈으며,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93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이것들을 31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이 주제들을 3개 영역의 10개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표 4> 참조).

&lt;표 4&gt; 학업중단의 영역, 주제, 주제 묶음 및 명확한 의미

영역 (3)	주제 (31)	주제 묶음 (10)	명확한 의미
학업 중단 이전	고단하고 답답한 학교생활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	학업중단자들은 고단한 학교생활과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의 지도와 틀에 박힌 수업을 받기도 했으며, 비행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 지도		
	틀에 박힌 수업		
	심리적 어려움		
	비행 경험	학업중단 이전의 인간관계	교우, 교사, 가족 관계가 좋은 학업중단자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관계가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 관계			
학업 중단 의 원인,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심정	내가 하고 싶은 것과의 차이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서, 배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서, 배우고 싶은 것과 차이가 있어서,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나 교칙준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였다.
	배움에 대한 목적 상실		
	예상과 달랐던 교육내용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		
	교칙 준수의 어려움	학업중단 과정	학업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는 매우 이른 경우도 있으며, 학업중단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며,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이 주는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학업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		
	학업중단 수행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에 대한 다양한 심정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그만둘 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심정이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하는 자도 후회하는 자도 있었다. 또한 학업중단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자도 있으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도 있었다.
	학교를 그만둘 때 감정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으로 인한 아쉬움		
	학업중단이 주는 스트레스		
학업 중단 이후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학업중단 이후 가장 좋았던 것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중단 후 자립심과 긍정적 사고가 향상되고 부지런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정보의 부족, 불안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수면주기와 식습관, 몸관리 등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생활태도의 긍정적인 변화		
	학업중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		
	학업중단 이후 생활 태도의 부정적인 변화	미래 계획	학업중단자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복교에 대한 성공기대는 낮았다.
	장래 희망이나 꿈		
	복교	학업중단 이후 주변 반응과 가족에게 바라는 것	학업중단자들은 주변이 학업중단을 이해해주고, 믿고 지켜봐주길 바랐다.
	학업중단 이후 주변의 반응		
	학업중단 이후 가족에게 바라는 것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	여러 기관에서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체험 활동, 상담 복지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기관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 1.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이전’ 영역은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과 ‘학업중단 이전의 인간관계’의 2개의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

### 가.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제와 의미 있는 진술은 <표 5>와 같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본인들의 기준에서 매우 이른 시간에 기상하여 등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고달파 했다. 힘든 등교는 잦은 무단 지각과 결석의 원인이 되며, 결국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흥미와 학습목적을 잃고 학업중단의 과정으로 흐를 수 있다(윤철경 외, 2013)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등교를 힘들어하거나 지각을 하기 시작하는 재학생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억압하는 지나친 규제에 답답해했으며,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단체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는 평소에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잘 살피고,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교사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교사의 무관심과 애정 없는 학생 관리를 아쉬워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고, 학생 개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닫혀 있는 진로상담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화된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수업 중 잠자거나 떠드는 등 소위 붕괴된 교실 분위기에 실망하기도 했다. 입학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로 구성된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이 잦은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며, 등교를 해도 잠을 자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교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정연순, 이민경, 2008), 이러한 학습 분위기는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우울이나 강박증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는 사례도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노출은 학업중단의 원인 중 하나이며, 중학교 때부터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김기화, 2017). 연구참여자들 중에도 흡연 등의 비행 경험을 가진 자들도 있었으며, 이미 중학교 때부터 비행경험을 가진 사례도 있었다.

&lt;표 5&gt;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고단하고 답답한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학교가 8시20분까지인데,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스쿨버스를 탔어요. (연구참여자 E)</li> <li>- 이것 해라, 이것 하지마라, 제한 두는 것이 싫었어요. 주차장 들어갔다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흡연 검사 당하고. (연구참여자 C)</li> <li>- 단체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축제할 때, 대회할 때, 행사할 때 힘들죠. (연구참여자 I)</li> </ul>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막대하는거요. 안 그런 선생님도 있는데, 좀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말이라든가, 행동으로요.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잔다고 급소 누르거나 욕도 하고... (연구참여자 C)</li> <li>- 학교에서는 학생 관리가 소홀했어요. 애초에 담임선생님들도 행정 잔업도 있고 그렇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이 컸어요. 제가 우울증, 강박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무슨 심리고,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연구참여자 A)</li> <li>- 진로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는 이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상 다른 것은 못해.” 이런 식이더라고요. (연구참여자 G)</li> </ul>
틀에 박힌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특성화고는 비교적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저희 과가 실습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있었는데, 각도와 대상까지 전부 다 정해줘서, 딱히 수업에 흥미를 못느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I)</li> <li>- 수업할 때 자거나 놀고 떠들어도 그냥 놔두고 하니깐, 저도 같이 떠들고... (연구참여자 D)</li> </ul>
심리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할 때는 학교 갈 때도 울고, 학교에서도 혼자 몰래 울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J)</li> <li>- 개인적으로 우울한 것만 빼면 학교생활은 괜찮았어요. (연구참여자 J)</li> </ul>
비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번 흡연으로 걸려서 교무실 청소했어요. (연구참여자 C)</li> <li>- 흡연으로 2번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B)</li> <li>- 중2 때부터 흡연으로 많이 걸렸고요. 음주, 폭력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교내흡연 3회요. (연구참여자 E)</li> </ul>

#### 나. 학업중단 이전의 인간관계

'학업중단 이전의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6>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데(조성국, 2018),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생활 중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았으며, 그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거나 의지가 되기도 했으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원만하지 못한 교우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다.

학교에 믿고 의지할만한 교사가 있다는 것은 학교적응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김기화, 2017),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으며,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는 교사로부터의 관심과 지원을 더 받고 싶어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시 주요 상담대상은 부모인데(윤철경 외, 2013),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연구참여자는 부모와의 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6> ‘학업중단 이전의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교우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은 흥미 없었지만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학교 다녔어요. (연구참여자 E)</li> <li>- 애들끼리 도와주고, 저희는 왕따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연구참여자 F).</li> <li>-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었어요. 저는 뭔가 하려면 제대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적당히 하자고 하고... (연구참여자 A)</li> </ul>
교사 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들이 형식적인 말보다는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구참여자 J)</li> <li>- 학교생활은 다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관심을 대게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죠. (연구참여자 F).</li> <li>- 선생님과의 관계는 엄청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A)</li> </ul>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과 관계는 꽤 좋아요. 고민거리도 다 얘기하고... 누나와도 친해요. (연구참여자 D)</li> <li>- 엄마가 저를 존중해줘요. (연구참여자 C)</li> <li>- 과묵한 편이라 엄마와 잘 얘기는 안하지만 화목한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B)</li> <li>- 부모님과 대화를 잘 안해요. 잘 안통해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언니와는 대게 친해요. (연구참여자 J)</li> </ul>

## 2. 학업중단 원인,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심정

‘학업중단 원인,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심정’ 영역은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 과정’, ‘학업중단에 대한 다양한 심정’의 3개의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

### 가.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의 원인’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7>과 같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장차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일을 본인이 다니던 특성화고에서는 배울 수 없고, 학업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에 힘들어하였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본인들이 희망하던 학과에 입학하면, 원하던 내용을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에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직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시킬 때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이 아닌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이명훈 외, 2018),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 단순히 특성화고 학과들의 종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각 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고를 사전 방문하게 하는 등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에서 소외감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는데(Alivernini & Lucidi, 2011, 조성국, 2018에서 재인용), 일부 연구참가자 중에는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거나 마찰을 일으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시기는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교우들과 함께 보냄으로써 사회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생들간의 관계에 대해 교사가 통찰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교칙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해 감수해야 하는 처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며, 결국 교칙을 준수하지 못해 스스로 학교를 떠나거나 퇴학당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표 7> ‘학업중단의 원인’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내가 하고 싶은 것과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도 잘 나오고, 딱히 재미없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미용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G)</li> <li>- 음악을 하면서 공부도 할려고 했었는데, 동시에는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음악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B)</li> </ul>
배움에 대한 목적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거예요. 학교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고. 듣지 않아도 될 수업을 받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연구참여자 J)</li> </ul>
예상과 달랐던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생각한 과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기계 쪽이 아니라 세공 쪽을 하고 싶었는데, 과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CAD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세공과는 상관없는 기계에 대한 것만 해서... 중학교 때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진학을 안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li> <li>- 막상 배워봤을 때 제가 배우고 싶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맞는데,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 안맞았어요. (연구참여자 H)</li> </ul>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지나치게 적응을 못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애들도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I)</li> <li>- 교칙은 잘 따랐는데, 애들 간에 마찰이 컸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보니까... 나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연구참여자 A)</li> </ul>
교칙 준수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시반 등교인데, 7시반에 나와도 지각을 했어요. 3년 동안 지각 안하고 다닐 자신이 없었어요. 지각하면 벌점 받고, 벌점이 쌓이면 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싫었고요. (연구참여자 C)</li> <li>- 사고쳤어요. 선생님을 놀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퇴학을 당하게 돼서 그 전에 자퇴했어요. (연구참여자 E)</li> </ul>

## 나. 학업중단 과정

‘학업중단 과정’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8>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은 길게는 수년에 걸쳐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도

한다(정연순, 이민경, 2008). 연구참여자 중에는 중학교 때부터 미진학을 염두했다가 특성화고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으며, 입학하자마자 특성화고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중단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중단의 과정은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담임교사에게 말씀드리고, 담임교사, 위클래스 상담교사 등과의 상담을 수행하였다. 이 때 담임교사의 상담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백승호, 2017), 담임교사의 상담 역량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둘 때 접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정보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윤철경 외, 2014) 학업중단시 학업중단자들에게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다(김기화, 2017).

<표 8> '학업중단 과정'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학업 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미진학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H)</li> <li>- 고1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수업도 잘 모르겠고, 어울리지도 못하겠고. 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다가 자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I)</li> </ul>
학업 중단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결석을 2~3주 한 뒤, 엄마, 아빠에게 자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표를 보여드리고, 부모님과 상의가 끝난 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담임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위클래스 선생님과 상담하다가 안맞아서 심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과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선생님과도 안맞았어요. (연구참여자 J)</li> <li>- 담임선생님, 과장님, 상담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연구참여자 G)</li> </ul>
학업 중단 숙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간 했어요. 상담도 상담인데, 너한테 생각할 시간을 줄테니까 2주간의 시간 동안 마음을 다잡고 다닐 건지, 자퇴를 할 건지 시간을 줬어요. (연구참여자 A)</li> <li>- 학업중단숙려제가 선택이어서 저는 안한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H)</li> <li>- 학업중단숙려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연구참여자 B)</li> </ul>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참여를 거부했으며, 일부는 참여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2주 이상의 적정 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준비하기, 참여하기, 마치고의 3단계로 진행이 되며, 숙려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심리, 진로상담, 직업체험,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김동일, 2017; 교육부, 2016). 학업중단 전후의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가정책으로 2012년부터 도입한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정보 습득경험은 22.2%에 불과했으며, 학업중단숙려제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학업중단자는 10

명 중 1명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윤철경 외, 2013).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가 결정 된 후에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미 학업중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거나, 심리적 결정이 확고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숙려기간을 제공해도 의사결정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시기는 장기결석이 진행되거나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학교에 통보하기 이전이 적합하다(김기화 2017).

#### 다. 학업중단에 대한 다양한 심정

‘학업중단에 대한 다양한 심정’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9>와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을 했을 때 선생님이나 교우들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기도 하며,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워했으나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후련해 하고 있었다.

<표 9> ‘학업중단에 대한 다양한 심정’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학교를 그만 둘 때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들이랑, 선생님들과 떠나서 아쉽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F)</li> <li>- 선생님들께 죄송했고,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후련했던 게 제일 컸어요. 탈출하는 기분이었어요. (연구참여자 I)</li> <li>- 잘리니까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별 면목이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E)</li> </ul>
학업 중단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자퇴하고 싶은 쪽으로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나오기 전에 미리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공방 쪽도 찾아가서 상담도 해봤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배워보고, 제 적성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한 것이라... (연구참여자 D)</li> <li>- 엄청 잘했다고 생각해요. 학교 가기 전에 맨날 울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버스 안에서 학교를 봤는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I)</li> <li>- 재밌게 다녔었기 때문에 미련 같은 것은 없어요. (연구참여자 B)</li> <li>- 자퇴를 하기 전부터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다고는 못하겠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이미 앞질러진 물이니까, 이 상태에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연구참여자 J)</li> <li>- 후회돼요. 왜 그랬나 싶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다시는 안그럴거예요. (연구참여자 E)</li> </ul>
학업중단으로 인한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장 못받는 것이 후회스러워요. (연구참여자 J)</li> <li>- 길 가다 교복 보이면 부러운 마음도 있고, 학교 축제 열렸다는 소식 들으면 여러모로 부러운 면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I)</li> </ul>
학업중단이 주는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면 졸업장은 주잖아요. 거기서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갈 수도 있는건데, 자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혼자 미래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J)</li> <li>- 진로나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예요. (연구참여자 E)</li> </ul>

연구참여자 중에는 학업중단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사례들도 있었으나 학업중단 이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한 뒤 학업중단을 하여 만족해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만족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에 만족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윤철경 외, 2013; 이주연, 정제영, 2015)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졸업을 하지 못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했으며, 재학생들의 모습을 보거나 학교 행사 소식을 접할 때 부러워하였다.

학업중단자들 중에는 진로에 대한 걱정과 혼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 3. 학업중단 이후

‘학업중단 이후’ 영역은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 ‘학업중단 이전의 영향’, ‘미래 계획’, ‘학업중단 이후 주변 반응과 가족에게 바라는 것’,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의 5개의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

#### 가.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10>과 같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래퍼와 같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거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벌기 위해 일용직 막일을 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기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원이나 꿈드림과 같은 지원기관을 다니거나 혼자 학습하였으며, 일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표 10>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장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힘들긴 해도 빨리 벌려고 하는거죠. 빨리 벌어서 그 돈으로 연습실 들어가서 랩을 제대로 배우고 싶거든요. (연구참여자 B)</li> <li>- 돈을 모으기 위해 알바 위주로 했어요. 알바는 편의점도 했고, 곰창집 알바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를 학원을 안다니고 책으로 혼자 공부했어요. 지금은 검할 공부와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F)</li> </ul>

주제	의미있는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학원 다니고, 딴 다음부터는 대학 가려면 미용 자격증 필요하다고 해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알바도 같이 하면서... 자격증은 네일아트, 메이크업, 업스타일 자격증 따고요, 알바는 미용 알바는 나이가 어리다고 안시켜줘서 치킨집 서빙도 하고, 주방도 하고... (연구참여자 G)</li> <li>- 꿈드림도 참여했고, 혼자 수능공부를 따로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H)</li> </ul>

## 나.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의 영향’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11>과 같다.

<표 11> ‘학업중단의 영향’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학업 중단 이후 가장 좋았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이상 정신적으로 피곤할 일도 없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이 대개 무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요. (연구참여자 I)</li> <li>- 하루에 있어서의 시간표를 마음대로 짤 수 있다는 거요. (연구참여자 D)</li> <li>- 학교를 안다니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벌 수가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C)</li> <li>- 다양한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H)</li> </ul>
학업 중단 이후 생활태도의 긍정적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디어 제가 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그냥 다니다 졸업장이나 따지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고,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고... 좀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I)</li> <li>- 생각이 대개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도 긍정적이었지만... 예전에는 맞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맞는 답을 찾기보다는 틀려도 괜찮지 않나, 틀려도 내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H)</li> <li>- 아무래도 일력 사무실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부지런해진 것이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인데, 서빙 일할 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 하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거는 등, 그런 것도 바뀐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li> <li>- 전체적으로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알바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배운 것에 한정해서 생각했었는데, 자퇴하고 나서는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접하는 정보들도 다양해지다보니까... 알바를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 다른 환경과의 접촉이 쉬워지다 보니까... (연구참여자 D)</li> </ul>
학업 중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는 전공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지도를 못받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J)</li> <li>-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는 느낌이에요. 학교를 그만둔 이상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는 루트가 다르죠. 자격증도 저 스스로 따야 하고, 소속감이 없다는 느낌? 혼자 놓여져 있는 느낌?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I)</li> <li>- 옆에서 알려줄 정보통이 없어서, 혼자 계속 찾아봐야 하는데, 이 정보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li> <li>- 약간의 불안감. 홀로서기라는 느낌이 들 때요. (연구참여자 A)</li> <li>- “뭘 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요. (연구참여자 E)</li> <li>-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는 거요. (연구참여자 C)</li> </ul>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학업중단 이후 생활 태도의 부정적인 변화	-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다보니까... (연구참여자 G) - 수면주기와 식습관이요. (연구참여자 A) - 노가다를 하다보니까 몸상태가 안좋아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업중단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좋아했으며, 스스로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업중단 이후에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알아보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의 자주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사고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학생 때보다 부지런해졌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른 환경의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연구참여자들 일부는 교사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 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 하였다. 또한, 혼자라는 것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일찍 기상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수면패턴의 어려움과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하여 나태함을 겪었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였으며 밤과 낮이 바뀌어 자기 시간관리를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백승호, 2017). 연구참여자들 중에도 시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거나 불규칙적인 수면 주기와 식습관을 갖게 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몸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있었다.

#### 다. 미래 계획

‘미래 계획’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12>와 같다.

<표 12> ‘미래 계획’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장래 희망이나 꿈	- 미용실 경영이요. 전문대 졸업하고, 샵을 좀 다니다가, 40대 중후반쯤에 호주로 이민 가서 살려고요. 호주가 네일아트 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G) - 래피요. (연구참여자 B) - 중학교 때부터 소방관이요. (연구참여자 C) - 세공사요. 세공을 배우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전문적인 세공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 쪽에 가서 학원을 다녀야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D) - 구체적인 꿈은 없어요. 그냥 검정고시에 붙는 것이요. 센터에서 검정고시 수업 듣고, 바리스타 수업 들어요. (연구참여자 I)

주제	의미있는 진술
복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힘들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참여자 J)</li> <li>- 복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일단 적응만 잘하면 진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응을 할 자신이 없어서... (연구참여자 I)</li> <li>- 전혀 생각 없어요. (연구참여자 B)</li> </ul>

연구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미용실 경영, 소방관, 세공사와 같이 명확한 장래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 없이 고등학교 학력 인정만을 받아두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들은 학업복귀에 대하여 부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이 높는데(이주연, 정제영, 2015), 일부 연구참여자들도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돌아갔을 때 적응을 잘 할 자신이 없어 했으며,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복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 라. 학업중단 이후의 주변 반응과 가족에게 바라는 것

‘학업중단 이후의 주변 반응과 가족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13>과 같다.

<표 13> ‘학업중단 이후 주변 반응과 가족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학업중단 이후 주변의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들은 혼자 잘한다고 대게 좋아하세요. 걱정이 많았는데 혼자 너무 잘한다고...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부럽다는 애들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G)</li> <li>- 부모님들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시니까. (연구참여자 I)</li> <li>- 아무래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변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만족을 하는데, 주변에서 안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연구참여자 D)</li> </ul>
학업중단 이후 가족에게 바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J)</li> <li>- 가만히 지켜봐주는거요. (연구참여자 A)</li> </ul>

학업중단 이후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들은 학업중단이라는 선택에 대하여 이해해 주고 있었으며, 격려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 이외의 주변에서는 염려와 부정적 인식을 느끼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들은 주변의 관심과 정서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었는데(김근영, 2012),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도 가족들이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믿고 응원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 마.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주제와 의미있는 진술은 <표 14>와 같다.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은 학업중단자들을 위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들은 꿈드림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기성장과 안정감을 경험하였으며, 미래 결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꿈드림을 통해 진로와 취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교우관계가 향상되고 사회성이 좋아졌다(백승호, 2017; 조성국, 2018). 연구참여자들 도 대부분 꿈드림과 같은 공공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지원, 개인 상담, 직업체험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때 학교로부터 정보를 얻어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도 있었으며, 지원기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으나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측으로부터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김근영, 2012). 연구참여자들 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이나 복지를 희망하였으며, 다양한 직업체험을 해보기를 희망하였다.

<표 14>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주제 및 의미있는 진술

주제	의미있는 진술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 사업이요. 검정고시도 지원해 주고, 수업도 여러 개 열려요, 아트 플라워, 포토샵, 푸드테라피, 엑셀 등 자격증반도 열렸어요. (연구참여자 H)</li> <li>- 서초구 꿈드림에서 개인상담과 학업도 지원해줘서, 취업준비도 도와주고, 건강까지도 자퇴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다 해줘요. 저는 개인상담과 학업을 신청했어요. 위클래스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연구참여자 A)</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연구참여자 I)</li> <li>- 틱움(학교밖청소년 자립교육센터)이요.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상담도 하고... (연구참여자 C)</li> <li>- 전혀 몰라요. (연구참여자 B)</li> </ul>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검정고시도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합격하고나서 알았어요. (연구참여자 G)</li> <li>- 학교를 그만두고나서 조금 더 우울한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복지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J)</li> <li>- 많은 걸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체험해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싶어요. 직업체험 같은 거요. (연구참여자 I)</li> </ul>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첫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재학 중 고단한 학교생활과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의 지도와 틀에 박힌 수업을 받는 것에 힘들어하거나 비행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우, 교사, 가족 관계가 좋은 학업중단자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학업중단자들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서, 배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서, 배우고 싶은 것과 차이가 있어서,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나 교직준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선택하였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는 매우 이른 경우도 있었으며, 학업중단 절차는 비교적 쉽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그만둘 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심정이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하는 자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자도 있었으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도 있었다.

셋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업중단 후 자립심과 긍정적 사고가 향상되고 부지런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정보의 부족, 불안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수면주기와 식습관, 몸관리 등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복교에 대한 성공기대는 낮았다. 또한, 그들은 주변이 학업중단을 이해해주고, 믿고 지켜봐주길 바랐다. 현재 학교 밖의 여러 기관에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체험 활동, 상담 복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 제언

#### 가. 특성화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에서의 학업중단 예방과 지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업중단 예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일반고 학업중단자들과는 달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차이가 있어서나 예상과 달랐던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꿈꾸는 것은 무엇인지 등 일반고 학생과는 다른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 확립화된 수업방법과 지루한 수업내용에 학업 지속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함으로 학생들이 역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교과 학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입학하자마자 특성화고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업중단자도 있었다.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타인의 권유나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특성화고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들을 위한 실제적인 특성화고 적응 안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나 교우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여 특성화고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재학 중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거나 마찰을 일으켰던 것이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성과 생활 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우간의 대인관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지도나 훗날 직장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중 하나인 대인관계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넷째,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 중에는 학업중단숙려제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업중단자도 있었으며, 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숙려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크게 도움이 못되는 것과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미 학업중단을 결심한 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학업중단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 대상도 이미 학업중단을 결심한 학생뿐 아니라 잠재적 학업중단자들에 대해서도 학업중단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성화고 학업중단 예방 지도를 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재학 중에 교사의 무관심과 애정 없는 학생 관리에 아쉬워하기도 했으며, 교사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싶어 했다. 따라서 교사들도 학업중단을 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학업중단자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 방법을 알고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역량, 이들에 대한 상담 역량, 이들을 위한 지도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등에 관한 교사교육이 특성화고의 모든 교사에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담임교사와 학부모간에 학생 지도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중단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모와 상의하고, 허락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으로부터 얻는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학업중단을 허락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담임교사와 학생 지도를 위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업중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 입장에서도 학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의 특성을 보다 더 잘 파악하게 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 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중학교 교사들에게 특성화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 중에는 본인들이 희망했던 학과에 들어가면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한 경우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백령, 2012). 따라서 중학생들의 진학지도시 특성화고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가 아니라 진학하고자 하는 특성화고의 해당 학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지, 졸업 후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중학교 교사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필요가 있다.

여덟째, 특성화고에서의 복교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중 일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적응할 자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이 복교생으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이들에 대한 포용적인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특성화고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떠나는 학생에게 그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 중에는 퇴교시에 학교로부터 학업중단자를 위한 지원기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는데, 학업중단 후 그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내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나. 학업중단자 지원기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의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지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는 특성화고 학업중단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학습한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학습한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학업중단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직업

을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 같이 장기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나 태도 등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는 학업중단자들이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중에는 학업중단 이후에도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자신의 특기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자 중에는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적극성이 부족하여 지원기관의 이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들도 있으므로 지역 학교로부터 학업중단자가 발생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 우선으로가 아니라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는 학업중단자에게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됨으로써 기상 시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오히려 수면패턴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시간관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정규 교육환경 속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으며,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에게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는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맺어줄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이나 복지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지역사회에서 모집, 발굴하여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멘토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업중단자들의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을 신장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더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속에서의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이나 조직이해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 상태로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직업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는 학업중단자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시 이러한 능력들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는 학업중단자 개개인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들은 정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존할 곳이 없다. 따라서 학업중단자 지원기관에서는 마치 일반 학교의 담임교사처럼 학업중단자들의 상담이나 진로지도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무처를 직접 방문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6).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교육부.
- 교육부(2003). **교육통계연보 2003**. 교육부.
- 교육부(2008). **교육통계연보 2008**. 교육부.
- 교육부(2013). **교육통계연보 2013**. 교육부.
- 교육부(2016).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 길라잡이**. 교육부.
- 교육부(2018). **교육통계연보 2018**. 교육부.
- 금명자 외(2004). 학교박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박 청소년 길찾기.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21-44.
- 김경숙, 김인희(2016). 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경험하는 소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2), 253-285.
- 김근영(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 및 조력에 관한 질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기화(2017) 교사의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도경험과 학교 내 예방체계 구축 방안. **교육문화연구**, 23(5), 273-294.
- 김동일(2017). **현실요법을 적용한 학업중단예방 집단상담이 특성화고 학업중단속려제대상 남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동하, 강준혁(2018). 청소년의 학업중단위기 극복 경험 연구. **청소년학연구**, 25(6), 109-133.
- 김문태(2013). **중학교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 적응 과정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미영(2017). **특성화고 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학업중단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신영, 정경은(2014). 무엇이 이들의 학교복귀를 가로막고 있는가? **청소년복지연구**, 16(3), 179-205.
- 김영희(2014).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정희(2015). **저경력 교사가 경험하는 교직생활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현주(2000). **학교사회사업 도입을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나옥자(2005). **실업계고등학교 잠재적 중도탈락자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 서울 D고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류진아(2015). **도농복합지역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질적연구: 생태체계적 요인 및 결정적 사**

- 건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163-187.
- 문선화, 신섭중, 이충기(2000). 중등학교 중퇴자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접근방안. **학교사회사업**, 3, 85-112.
- 백승호(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통합적 지원을 받은 학업중단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서우석 외(2001). 경기도 실업계 고교 학생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도 교육청.
- 서원석, 이창훈, 김기수(2015). 중고등학생의 이공계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5(2), 92-112.
- 손득운(200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인문계와 실업계고등학생의 비교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손병덕, 김민선(2017). 잠재적 학교 밖(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모형 개발. **청소년학연구**, 24(10), 197-221.
- 신경림 외(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오혜영 외(2011).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 유진이(2009)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심리적 지도방안. **청소년학연구**, 16(11), 229-257.
-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근호(2010). 존재의 교육과정 탐구. 현상학적 접근의 교육과정적 의미. **교육과정평가연구**, 13(3), 31-47.
- 이명훈 외(2018). **충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충남교육청.
- 이백령(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은자, 송정아(2017).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연구 - H청소년대안센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8(5), 213-237.
- 이주연, 정제영(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임유화, 이병욱(2014). 특성화고 학생의 잠재적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직업교육연구**, 33(2), 1-16.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전경숙(2013).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전은진(2017). **청소년기 자발적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과 대학진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정연순, 이민경(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2.
- 정제영 외(2017).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학교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8(1), 75-94.

조성국(2018).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과정과 자립준비 경험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조용환(1999).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최동선, 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상근 외(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지연, 김현철(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꿈드림 소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한석(2015).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안양시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 논문접수: 2019. 02. 10 / 1차수정본 접수: 2019. 03. 12 / 게재승인: 2019. 03. 22

<Abstract>

##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School Dropou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yung-Hu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school dropou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interview fo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10 adolescents who dropped ou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from December 8 to 23, 2018.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 31 themes were extracted from interviews with 10 research participants. And 10 theme clusters were categorized from these. And these clusters were divided into 3 domains : 'before school dropout', 'causes & process of school dropout, feeling about school dropout', 'after school dropout'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adolescents who dropped ou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uffered from hard school life, disappointing lead from teachers, stereotypical lesson. And they committed misdeeds, and had psychological difficulties. Some of them kept up th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teachers, parents, some of them did not. Some of them kept up th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teachers and parents, while some of them did not.

Second, they chose dropout due to various different causes. The procedures of school dropout proceeded with comparative ease. The effect of dropout prevention program is very limited. The feeling they felt at the time of school dropout varied individually. Some adolescents who dropped ou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were satisfied while others were stressed out, regretting their decision.

Third, they lived diligently working part-time jobs or preparing 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 test after dropout. They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after dropout. But sometimes they experienced various difficulties and negative changes. Most of them had their goals, and they were preparing for them. Their expectation was low that their life will succeed if they returned to school. They wanted people to understand their decision about dropout. And multiple institutions are supporting adolescents who dropped ou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hey need practical support : Various information, activity for career experience, counseling etc.

**Key words:**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chool Dropout, Phenomenological Study